

광주

호남에 부는 새로운 바람

최정은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

1. 집토끼와 산토끼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를 ‘집토끼와 산토끼’로 비유하면서 결과를 예측한다.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토끼’ 지키기 일까, 아니면 밖에 있는 ‘산토끼’ 잡기일까. 호남에는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민주당 ‘틔발론’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심할 수 없었다. 지난 3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찾아갔다. 광주·전남 지역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다.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4월 6일, 한명숙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았다.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후보와 서구을의 야권연대 단일 후보인 오병윤 후보를 찾아 지지유세를 이어갔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민주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뜸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집토끼’로 불리는 민주당

전통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행보였다.

민주통합당으로의 당 통합 과정에서부터 이번 총선 공천에 이르기까지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집토끼 지키기'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팽팽한 접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고, 서구에서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부동의 1위로 지지율 40%를 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위협하는 등 무소속의 약진이 이어지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 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인 지도부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일까? 4월 11일 총선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6석, 통합진보당 1석, 그리고 무소속 1석으로 당선이 결정됐다. 이 결과를 두고 '광주 유권자의 불만이 잠재위지고, 이른바 민주당 '텃밭론'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필자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민주당 텃밭론의 부활'이 아닌 '호남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하려 한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만을 봤을 때,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8개 선거구, 제19대 총선거에서도 민주통합당 후보 6명 모두가 당선되었는데 어떻게 '호남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까.

2. 광주가 변하고 있다

광주지역 투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도 제18대 총선거는 42.4%(전국투표율 46.1%),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9.8%(전국 투표율 54.5%), 이번 제19대 총선거는 52.7%(전국투표율 54.3%)로, 이번선거가 최근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대결로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지방선거 때보다 광주에서는 19대 총선의 투표율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광주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18대에 비해 19대에서 2%정도 떨어진 반면,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율은 18대 16%에서 19대 21%로 약 5%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연 광주에는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

3. 호남의 야당

광주 동구에서는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가 없었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투신 사망 사건’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은 이를 책임지고자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이었던 박주선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 총 6명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게 되었다. 박주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8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19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전국 최하 득표율 31.6%로 당선됐다. 이러한 변화는 후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8대 당시 통합민주당의 광주 동구 정당 득표율은 74.6%였지만, 19대 민주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은 68.1%로 약 6.5%정도 낮아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낮아진 반면,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18대 진보성향의 정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지지율이 약 11%였지만, 19대 진보성향의 정당(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신당과 녹색당 등)의 지지율은 약 16%로 5%정도 상승했는데,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5%의 상승을 ‘호남의 새로운 바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구 지역의 전체 투표율이 18대의 44%에서 19대의 55.2%로 11%정도 상승했다는 점과, 동구 지역 주민들에게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공천 전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갔다는 것, 그리고 광주의 유권자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도 눈을 돌렸다는 사실에 민주통합당은 긴장해야 한다. 호남의 여당인 민주당에서 야당인 진보성향의 정당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의 공천만이 국회의원 1석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에게 위협이 될 만큼 득표율을 올렸던 통합진보당의 김관희 후보의 정책¹⁾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했는지,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어떻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4.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물에 대한 관심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의 결과를 봐도 광주지역의 변화가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서구 갑의 거듭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의 박혜자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의 조영택 후보가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달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후보가 42.1%의 20%이상의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2등은 무소속 현역의원이 아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했던 무소속 정용화 후보였다.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성향 현역의원 후보를 제치고 2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구갑 공천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지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총선 후보자 등록 시기가 다가와도 후보공천을 하지 못하고 공천보류 결정을 하는 등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성 2인 경선’으로 경선 방식을 결정한 후에도 다른 여성 예비후보가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천이 지연되는 와중에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남성 후보들은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민주통합당은 광주의 유권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무소속의 정용화 후보에게 눈을 돌렸다.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지만 지역민들에게는 ‘클린 선거, 쓰레기 수거 선거운동

1) 통합진보당은 3월 29일, 8개 선거구 8명의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가 모여 공약 이행 3대 원칙을 발표 : ①매년 공약 이행 점검표 공개, 공약의 이행과정을 공개하고 평가 받음을 약속 ②시민의 눈으로 정책 입안 및 사안별 공청회와 분기별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③지역공약을 당 중앙 차원에서 지원 실행. 또한 ‘광주를 바꾸는 8가지 약속’이라는 8가지 현안 문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등의 참신함으로 주목을 받으며 꾸준하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점쳐졌던 무소속 조영택 후보는 정후보에 1.4%정도 뒤처지는 결과를 얻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승복하지 못했던 무소속 송갑석 후보도 정후보보다 3.3% 뒤처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다.

광주 서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새누리당의 정당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이유도 유권자들이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닌 후보에 대한 관심 투표가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였던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한번도 1위를 놓친 적 없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44.2%를 기록하며 광주의 파란을 예고했었다. 이정현 후보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1%의 득표율을 얻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현역 물갈이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70%에²⁾ 육박하는 등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에 대한 '실망'이 컸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졌다. '호남 예산 지킴이'로 한해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지역에 산을 확보했던 후보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컸으며, '호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주의 극복'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여당에 대한 기대감은 민주당 통합당 및 통합진보당 지도부에게 불안감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민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야권연대 양당 지도부의 선거지원 유세가 이어졌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서대석 후보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사퇴, 그 결과로 인해서 야권연대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가 52.4%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정현 후보(득표율: 39.7%)와 약 13%차로 당선되었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아닌 야권연대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꾸준히 여론조사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이정현 후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2) 2011년 10월 10일, 무등일보-코리아리서치 의뢰, 지역민 정치의식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지역민 1000명 조사(신뢰도 95%)

떨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지역유권자들은 소속 정당과는 상관없이 기회를 주고자 하는 민심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다.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호남이 민주당의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다. 후보에 대한 관심과 야권연대와의 경쟁이 투표율로 이어져 서구율은 광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59.5%를 기록했다.

5. '실천하는 정당'과 '가치 중시 정당'

광산 갑과을, 그리고 남구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광산 갑에서는 민주통합당 현역 김동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고, 광산 을에서는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단수 공천되었다. 광산 갑과 을에서는 각각 68.4%와 74.7%의 높은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되었고, 남구에서는 장병완 후보가 67.8%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텃밭론'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 선거 결과와 함께 지역의 득표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광산은 광주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50.7%로 전국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왔다. 다른 지역보다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지지가 높아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없었다는 것도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득표율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23%를 기록했다.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봤을 때에도, 광산 갑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27.3%를, 광산 을 통합진보당 황차은 후보는 25.3%의 지지를 받았다. 18대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10%대의 득표율을 올렸던 것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고,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산구의 진보성향의 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득표율이 거의 40%에 가깝게 나왔던 것까지 보면 광산구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남구에서도 통합진보당 이민원 후보가 21.7%로 선전했고, 2010년의 선거에서 진

보 성향의 정당 지지율이 30%정도로 꾸준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이러한 관심이 선거가 거듭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일까?

19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 2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첫 지원 유세로 광주 광산구의 월곡시장을 찾았다. 광주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통합진보당은 광주의 시민들에게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보다 더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소속 광진구의원들은 'SSM 진입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무산시켰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월곡시장의 상인들과 이 지역의 시민들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의 민심이 표로 연결되어 온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터전이 소외받지 않도록 '실천하는 정당'에 표를 주게 된 것이고, 이 결과로 진보성향 정당의 꾸준한 득표율 상승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6. 호남에 부는 새로운 바람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대의'와 '명분', 그리고 '가치'가 일치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소외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당에도 자신의 표를 행사하게 된다. 4년이란 기간 동안 지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지역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된다. 19대 총선의 결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호남은 더 이상 '집토끼'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당의 가치와 상징성을 중요시 여기듯, 지역민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호남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지역에서도 외면당할 것이다. 2012년 겨울,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호남의 새로운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교환삼아 정권 교체를 위해 민심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